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사진 및 삽화 계량 분석¹⁾

최영선* · 윤인경**

창원여자고등학교* ·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Photos and Illustrations in the Practical Arts (Technology·Home Economics)Textbook Based on A Gender Equity Perspective

Choi, Young-Sun* · Yoon, In-Kyung**

*Home Economics Teacher, Changwon Girl's High School**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Textbooks written by the 7th national curriculum in a gender equity educ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some improvements which should be solved in terms of gender equity in Practical Art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through analyzing their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Quantitative analysis were carried out fo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Textbooks were divided into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fields. The pictures and illustration were analyzed in terms of sexual discrimination considering the social status and role.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few cases of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text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cases of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pictures and illustrati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some studies carried out in the 6th national curriculum, many problems raised in a gender equity education standpoint in the studies were solved. However, there were some cases of sexual discrimination which should be improved in the textbooks written by the 7th national curriculum.

1) 이 논문은 2006학년도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석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내용임.

2) 교신저자: Choi young-sun, 148, Anguk-Dong, Jongno-Gu, Seoul, Korea (110-240)

Tel: 02-3704-3925 E-mail: nana6709@hanmail.net

Second, there were few cases of sexual discrimination in Practical Arts textbooks. On the contrary many problems in terms of gender equity education were found in the textbook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his result may be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he traditional viewpoint toward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 needs to be changed. In other words, their textbooks have to include practical contents for the positive sense of value and right sexual roles in terms of gender equity education. The contents of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Textbooks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the articulation among the subjects and grades especially in terms of gender equity education.

Key words: 실과(기술·가정)교과서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Textbook), 양성평등(gender equity), 성차별적인 요소(sexual discrimination cas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는 산업화의 진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진출기회가 증대되면서 여성의 인권, 평등, 자유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여성다운 여성과 남성다운 남성’에 대한 전통적 기대는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양성성¹⁾’에 대한 개념이 점차 확대되면서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필요성(임정빈, 1997; 정혜운, 2001; 사미숙, 2003)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이혼율 증가, 결혼 기피, 출산율의 저하, 가족해체, 노인문제등과 같은 가족문제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의식은 인간 최초의 학습의 장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가정생활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가족관계나 가족 규범 또한 달라진 모습(이인희, 1993; 사미숙, 2003)을 보이고 있다. 즉, 앞으로는 점점 더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윤희성 있는 새로운 성역할 변화가 요구될 것이며 미래 사

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남녀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은 더욱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학교 교육에서는 지금까지 양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남녀 공학교로의 변화, 교과서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의 삭제, 성 평등한 내용의 제시, 양성에게 동일한 교과목 개설 등의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 교육에의 접근 기회의 확대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과정 차원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실현 되었다(김재춘 외, 1999)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근절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교과서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성 평등한 요소를 제시하려는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양성 평등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김선경, 2001; 정혜운, 2001; 오재림 외, 2002; 사미숙, 2003; 정혜숙 외, 2003). 이외에도 사회적 지원체제 미비, 교사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적 차원에서도 의도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정혜숙 외, 1998).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맥락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양성평등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등학교의 기술·가정 교과서는 제6차 교육과정 이전까지 독립교과로서 가정교과서는 여학생이, 기술교

1) Bem(1975)은 고정 관념적 정체감 유형인 남성성, 여성성의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서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양성성’이란 그리스어로 남성을 의미하는 ‘mgn’과 여성을 의미하는 ‘gyn’으로 구성된 용어로 한 개인 안에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정빈, 1997).

과서는 남학생이 배운 교과서로서 다른 교과서보다 남녀의 차이가 더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교과가 하나의 교과서로 통합된 지금 전통적 관점에서 여성영역으로 간주된 가정 교과와 남성영역으로 간주된 기술교과의 양성평등성 정도를 비교해봄으로써 남녀공통이수 교과서로서의 유용성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양성평등교과서로서의 유용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교과서 집필시 혹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실과(기술·가정)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²⁾의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성과 남녀 역할을 구조화된 내용분석지로 계량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특성을 살펴보고 학교급별로 <가정>분야와 <기술>분야의 차이를 비교한다.
 - ① 사진 및 삽화에서 성별분포의 차이를 비교한다.
 - ② 사진 및 삽화에서 성별에 따른 출현장소의 차이를 비교한다.
 - ③ 사진 및 삽화에서 성별에 따른 활동 및 직업의 차이를 비교한다.
- 2)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등장인물의 구성 및 관계를 살펴보고 학교급별로 <가정>분야와 <기술>분야의 차이를 비교한다.
- 3)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양성평등관련 내용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고 학교급별로 <가정>분야와 <기술>분야의 차이를 비교한다.

3. 연구의 제한점

가. 2종 교과서가 사용되는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경우 채택률이 높은 출판사 3곳을 선정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모든 2종 교과서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나. 본 연구에서 학교급별로 사용된 교과서의 수가 서로 같지 않아 연구 결과로 나타난 학교급별 빈도를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³⁾

II. 선행 연구의 고찰

양성평등관점에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양성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문제점, 방안, 정책제언 등에 관련된 연구(김재춘 외, 1999)와 교육과정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김정자 외, 1985; 김재인 외, 1993; 정해숙 외, 1998; 오재림 외, 2002; 김선경, 2001; 정해숙 외, 2003), 교육과정 내용 개발에 관한 연구(정해숙 외, 2002)와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정혜운, 2001; 사미숙, 2003)등 이었다. 선행연구는 주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실과(기술·가정)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처럼 양성평등교육의 전체적인 경향을 다루기보다는 교과서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초·중·고 교과서와 중등 기술·가정 교과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최영선(2006)의 석사학위 연구에서는 ‘문장’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 본 연구에서는 ‘사진 및 삽화’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함.

3)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의 절대수를 비교하는 것 보다는 <가정>과 <기술> 분야의 남녀의 빈도수에 따른 양성평등정도를 우선으로 함.

4) 학교교육과정에서 교과서 분석이 1980년대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여 제4차 과정기 이후부터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함.

1. 초등 실과 교과서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의 초등 실과 교과서 연구는 연구과제 차원에서 혹은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현행 제7차 교육과정까지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과 교과서에 대한 계량·질적 분석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보다는 초등학교 전체 교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라 독립교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또한,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의 교과서 분석 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 결과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 보고서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에 나타나는 성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문장과 사진 및 삽화 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 시 양성 평등한 교과서의 개발은 주요한 과제가 되었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여성부문과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에 교과서의 성차별적 교육내용 삭제는 중요한 여성정책의 하나로 제시되기 까지 하였다(정무장관(제2)실, 1995). 이러한 노력으로 교과서의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이후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시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남녀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강조하였으며 양성 평등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현행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에는 오재림 외(2002), 정해숙(2002), 임은주(2004)의 연구가 있었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초등학교 전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오재림 외(2002)의 연구에서는 실과 교과서만의 구체적인 연구는 얻기 어려웠다. 그리고 정해숙(2002)의 연구는 실과 교과서만을 분석하였으나 양적분석에 대한 결과 없이 질적 분석만으로 구성되어 종합적인 논의를 하기에 부족하였다. 그 외 실과 6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연구한 임은주(2004)의 연구는 초등학교에서의 실과 5학년 교과서를 제외하여 제한적이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각 교과를 독립적 심층 분석한 결과보다는 주로 전체적인 초등학교 교과를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성 차별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어 실과 교과서만의 단독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는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과 교과서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2. 중등 기술·가정 교과서

1980년 중반부터 중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을 둘러싸고 성차별적 교육과정이라는 논란이 거둬되었으며 제5차 교육과정부터 점진적으로 남녀학생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성차별적 교육내용 삭제는 중요한 여성정책으로 제시(정무장관(제2)실, 1995)되면서 남녀분리교과로 운영되던 기술과 가정교과를 제6차 교육에서는 남녀 모두 배우도록 하였다. 이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두 교과를 병합하여 국민기본공통교과 중 하나로 남녀공통 이수과목으로 진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정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교과내용에서 양성평등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정해숙, 2000)는 논의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술·가정 교과서가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병합된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필요성은 크다.

기술·가정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가정교과를 중심으로 다룬 논문은 여러 편 있었으나 기술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다룬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초등학교의 실과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중등의 기술과 가정 교과 또한 많은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개선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김경자 외, 1985b; 김재인 외, 1993; 정해숙 외, 1998). 이에 여기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실과(기술·가정)교과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는 김선경(2002)에서 시도되었으나 미 발행된 교과서(실과6, 중3 기술가정)제외로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다. 제4, 5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성 고정관념이 나타나 수정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정>분야(의식주, 가족, 자원)의 사진 및 삽화를 대상으로 계량·심층 분석한 김미정(2004) 연구에서는 남녀의 옷차림, 성 역할이나 활동 배경, 활동 묘사 등에서 남녀 불평등이 나타났으며 사진보다 삽화의 개선이 더 요구되어 교과서 집필 시 삽화가 선정 및 작업에서의 배려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10학년 기술·

가정 교과를 연구한 강선미(2004)는 가정 생활관련 영역 (생계유지, 가사노동, 자녀양육, 노부모부양)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교육내용에 대해 계량·심층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이 반영된 내용이 교과서 문장에 여전히 있었고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여성에게만 강조하는 비율이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남녀 공통 교과로서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이 시급함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분야가 양성평등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것과 여러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과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그 연구가 <가정>분야에 치우쳐져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되어 있는 지금의 기술·가정 교과서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는 어려웠으며 특히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더불어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석을 위한 기준들이 개인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양성평등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선행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따라서 실과(기술·가정)교과서가 남녀공통이수 교과로서 성차별적인 관행을 해소한다는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점검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교과서 2권과 중학교 7, 8, 9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9권,

고등학교 10학년 기술·가정 교과서 3권을 선정하였다. 중등학교는 2종 도서이기 때문에 2종 교과서 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현재 각 급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출판사⁶⁾의 교과서를 선정하였으며 총 14권을 사용하였다.

2. 분석 기준 설정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성형평성과 남녀역할을 계량 분석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교과서 내용을 <가정>과 <기술>분야¹⁾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기준을

<표 III-1> <가정>분야와 <기술>분야의 구분

영역 학년	초등 실과 교과서 ⁷⁾	
	<가정>분야	<기술>분야
5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가정생활 ■ 아동의 영양과 식사 ■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 생활환경 정돈하기⁸⁾ ■ 용돈관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기구 다루기와 전자 키트 만들기 ■ 꽃과 채소 가꾸기 ■ 컴퓨터 다루기
6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음식 만들기 ■ 재봉틀 다루기 ■ 자원 활용하기 ■ 집안 환경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직업의 세계⁹⁾ ■ 목제품 만들기 ■ 동물 기르기 ■ 컴퓨터 활용하기
영역 학년	중등 기술·가정 교과서	
학년	<가정>분야	<기술>분야
7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가족의 이해 ■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기술 ■ 제도의 기초 ■ 컴퓨터와 정보처리
8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 마련과 관리 ■ 자원의 관리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의 이해 ■ 재료의 이용 ■ 컴퓨터와 생활
9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식사관리 ■ 가족생활과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과 진로 ■ 전기전자 기술
10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의 설계 ■ 가정생활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와 수송기술 ■ 건설 기술의 기초

5)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과(기술·가정)으로 교과명칭이 한 교과로 명명되어 있어 여기서는 ‘분야’라는 단어로 그 뜻을 구분하고자 함.
 6) 3곳의 출판사 중 1종은 같았으나 2종은 서로 다르게 선정되어 학교급별로 A, B, C로 구분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호는 서로 다른 출판사임.
 7) 실과 교과는 교과 특성상 <기술>과 <가정>분야로 구분되지 않아 중등 기술·가정 교과 분류를 중심으로 가정교육 전문가와 대학원생의 자문을 얻어 <가정>분야 항목 추출 후 그 외 영역은 <기술>로 분류함.
 8) 실과 5학년 「집안환경가꾸기」 소영역은 실내 환경 꾸미기, 나무 심기와 손질하기로 구성되어 가정과 농업 내용을 포함하나 가정 교과의 주생활 영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가정>분야로 분류함.
 9) 실과 6학년 「일과 직업의 세계」는 가정과 기술의 공유영역이지만 중등학교에서 「산업과 진로」 단원이 <기술>분야로 구분되는 점과 학년간 영역간의 학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술>분야로 분류함.
 10) 제7차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교육부, 1997)참조.

설정한 이유는 실과(기술·가정)교과서는 성에 따라 성 정형적인 교과로 분류되기 쉬운 대표적인 두 교과를 하나의 교과서에 병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실과(기술·가정)교과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성평등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표 III-1>과 같이 구분하였다.

3. 계량 분석

1) 내용 분석지 구성

내용 분석지는 단일 분석지와 인물 분석지로 총 2종으로 개발하였다. 내용 분석지 개발을 위해 선행논문(정해숙 외, 1998; 오재림 외, 2002)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등장인물의 특성과 성별구성 및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물 분석지를 활용하였으며 여성의 지위와 역할, 양성평등 관한 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단일 분석지를 활용하였다. 등장인물의 특성은 성별 분리현상과 성별 역할 분리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성별 분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녀의 역할 분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등장인물의 성별 구성과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가족 내 권한, 역할, 관계를 통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는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양성평등 소재를 다루었거나 이를 생각해보게 하는 사진이나 삽화를 살펴보는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2)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의 대상은 교과서에 묘사된 사진 및 삽화이며 성별을 알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여성의 지위나 역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다만, 성별 구분이 되지 않거나 균중, 미술작품, 의인화된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개개의 사진 및 삽화를 분석하되 연속 장면은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였다.

3) 분석 자료 처리

내용 분석은 분석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1차로 분석한 결과를 가정교육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검토 작업을 한 후 가정교육 전문가 3명의 자문을 받아 오류를 점검한 후 SPSS 10.0 프로그램으로 빈도수, 평균 등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양성평등성 검증을 위한 점검표로 점검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정해숙 외, 1998; 오재림 외 2002)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사용방법은 3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으며 이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양성평등성 검증을 위한 점검표

항목	점검지표항목
성별 분포	1. 등장인물 성별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출현 장소	2. 남성영역으로 간주되는 장소(예: 직장, 산업현장)에서 여성비율은 남성과 균형을 이루는가?
	3.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장소(예: 가정)에서의 남성비율은 여성과 균형을 이루는가?
성별 특성과 활동	4. 남녀 등장인물의 외모 묘사부분에서 고정적인 성편견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5. 남녀등장인물의 성격묘사에서 전통적인 성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6. 가정생활에서 전통적으로 남성 일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을 여성이 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가?
	7. 가정생활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가사활동 및 양육활동을 남성이 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가?
직업 활동	8. 학습활동에서 남성적 놀이(운동)와 여성적 놀이(운동)가 구분 묘사되고 있는가?
	9. 가사노동 이외의 직업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가 적었던 전문직 분야이나 정규직에 종사하는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가?
양성 평등 반영 정도	10. 전통적으로 남성의 참여가 적었던 직업영역에 종사하는 남성의 모습을 다루는가?
	11.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12. 가정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술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13.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술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표 계속>

항목	점검지표항목
양성평등의식 교육 기회	14. 현실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다양한 성차별상황을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습활동이 주어지는가?
	15. 남녀학생이 다양한 진로모색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습활동이 주어지는가?
	16. 여성의 인권, 권리에 대해 다룬 문제가 있는가?

IV. 분석 결과 및 해석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성형평성과 남녀 역할을 살펴 보기 위해 계량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등장인물의 특성

등장인물의 특성은 등장인물의 성별분포와 출현장소, 성별에 따른 활동 및 직업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라 그 분포를 살펴본 것으로 초등학교 실과 <가정>분야와 <기술>분야에서는 모두 1:1로 비슷하여 성별 분포에서 오는 차이점은 없었다. 중학교 <가정>분야에서도 1:1의 비율로 나타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기술>분야는 남성의 비율이 2배정도 높았다. 고등학교 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기술>분야에서는 남성이 4배정도 비율이 높아 성간비율의 차이가 컸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별 분리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은 선행연구(김정자 외, 1985b, 정해숙 외, 1998)에서도 알 수 있었으며 정해숙 외(1998)연구에서는 중학교 기술·산업 교과에서 성별분포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었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중등학교의 <기술>분야는 양성평등 관점에 따른 수정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 IV-1>과 같았다.

<표 IV-1>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

단위: %(명)

성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기술	가정	기술	가정	기술
여성	28.3 (80)	22.3 (63)	34.1 (577)	11.2 (190)	43.6 (315)	2.9 (21)
남성	27.6 (78)	21.9 (62)	33.6 (568)	21.1 (357)	40.4 (292)	13.1 (95)
계	55.8 (158)	44.2 (125)	67.7 (1,145)	32.3 (547)	84.0 (607)	16.0 (116)

2)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출현 장소

사진 및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배경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실과 <가정>분야에서는 남녀 모두 가정(장소)에서 출현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 공공일반, 야외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남녀 비율도 비슷하였다. 이는 중고등학교 <가정>분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실과 <기술>분야에서는 공공일반과 야외에서 출현비율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분포는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중학교 <기술>분야에서도 공공일반, 야외에서 인물의 등장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비율에서 남성이 2배 정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기술>분야에서 더 뚜렷하였으며 야외에서 성별에 따른 출현 비율이 여성이 10명인 것에 반해 남성은 43명으로 4배나 높아 성 분리현상이 뚜렷하였다.

<표 IV-2>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학교급에 상관없이 <가정>분야는 전체적으로 가정(장소)을 배경으로 출현하는 남녀의 비율이 비교적 균형적인 것을 알 수 있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과 <기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등학교의 <기술>분야는 여성인물의 출현 비율이 매우 낮아 전통적 관점의 교과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양성에게 친화적인 사진 및 삽화로 수정이 요구되었다.

〈표 IV-2〉 성별에 따른 출현 장소

단위: %(명)

출현 장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기술		가정		기술		가정		기술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가정	18.9 (24)	20.5 (26)	8.7 (8)	6.5 (6)	22.0 (169)	19.3 (148)	9.2 (39)	9.2 (39)	20.9 (102)	17.2 (84)	6.9 (6)	4.6 (4)
학교	15.7 (20)	15.0 (19)	6.5 (6)	8.7 (8)	6.0 (46)	6.3 (48)	1.2 (5)	3.1 (13)	2.3 (11)	2.0 (10)	0	0
공공 일반	7.1 (9)	6.3 (8)	17.4 (16)	21.7 (20)	12.1 (93)	12.5 (96)	20.0 (85)	31.0 (132)	10.2 (50)	9.4 (46)	0	27.6 (24)
야외	9.4 (12)	7.1 (9)	15.2 (14)	15.2 (14)	9.0 (69)	12.9 (99)	4.0 (17)	22.5 (96)	18.9 (92)	19.1 (93)	11.5 (10)	49.4 (43)
계	51.2 (65)	48.8 (62)	47.8 (44)	52.2 (48)	49.1 (377)	50.9 (391)	34.3 (146)	65.7 (280)	52.3 (255)	52.3 (255)	18.4 (16)	81.6 (71)

3)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활동 및 직업

활동 및 직업 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활동 분포와 성인의 성별에 따른 활동 분포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먼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활동 분포를 정리 한 <표 IV-3>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가정>과 <기술>분야에서 모두 요리/재봉/ 청소/세탁과 일상/기타생활에서 활

등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분포도 균형 적이었다. 중학교의 <가정>분야에서 운동·구경/놀이 활동 에서 남아가 2배정도 더 높게 출현하고 있어 활동적인 놀 이는 남성이라는 성 분리적인 놀이 활동이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가정>분야에서도 남아가 3배정도 높아 이런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뚜렷해졌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 및 청소년의 출현비율보다는 성 인의 출현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기술>분야에서 아동 및

〈표 IV-3〉 성별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등장인물의 활동

단위: %(명)

활동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기술		가정		기술		가정		기술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요리/재봉/ 청소/세탁	14.1 (14)	12.1 (12)	17.6 (13)	16.2 (12)	5.4 (33)	6.0 (37)	0	0.6 (1)	3.3 (7)	3.7 (8)	0	0
소비활동	3.0 (3)	4.0 (4)	1.4 (1)	2.7 (2)	5.1 (31)	5.2 (32)	2.5 (4)	1.3 (2)	0.9 (2)	0.5 (1)	0	0
가족·친구모임	8.1 (8)	10.1 (10)	2.7 (2)	1.4 (1)	12.1 (74)	14.1 (86)	3.1 (5)	3.8 (6)	24.3 (52)	19.2 (41)	0	0
공부, 독서 과학실험	11.1 (11)	11.1 (11)	8.1 (6)	12.2 (9)	4.2 (2.6)	3.2 (8.3)	10.7 (17)	15.0 (23)	2.8 (6)	2.4 (5)	0	0
일상·기타	11.1 (11)	11.1 (11)	14.9 (11)	13.5 (10)	17.2 (105)	17.0 (104)	18.8 (30)	30.0 (48)	12.6 (27)	9.8 (21)	30.3 (3)	60.0 (6)
운동· 구경/놀이	0	4.0 (4)	4.1 (3)	5.4 (4)	3.5 (21)	7.0 (43)	4.4 (7)	10.1 (16)	5.6 (12)	15.0 (32)	0	10.0 (1)
계	47.5 (47)	52.5 (52)	48.6 (36)	51.4 (38)	47.4 (290)	52.6 (322)	39.4 (63)	60.6 (97)	49.5 (106)	50.5 (108)	30.0 (3)	70.0 (7)

청소년의 등장인물의 수가 적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활동의 차이는 여아는 그림그리기, 피아노치기, 독서하기 등의 정적인 활동의 비율이 높고 남아는 공차기, 실험하기 등의 활동적인 활동의 비율이 높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것은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이 스포츠 영역, 과학영역, 탐구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능력과 역할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활동에서 남녀를 같이 등장시키는 방향과 가족이 같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사진 및 삽화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의 <가정>과 <기술>분야 그리고 중학교의 <가정>분야에서 요리/재봉/청소/세탁과 같은 가사 관련 활동에서 계량 분석 수치가 학교급별로 차이가 없는 것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성인 등장인물의 활동을 <표 IV-4>를 통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가정>분야에서는 가족·친구/사교활동이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여성은 가사노동/육아 활동과 직업 활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직업 활동, 가사노동/육아 순으

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반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분야에서는 등장하는 남녀 성인 47명 중에서 24명이 직업 활동에 치중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활동 간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 교과서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중학교에 비해 성별에 따른 비중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학교 <가정>분야에서는 여성은 가사노동/육아 활동이, 남성은 직업 활동이 가장 높았다. 성별에 관계없이 일상·기타 생활과 가족·친구/사교활동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는 직업 활동에서 남성이 4.2%정도 높았으며 가사노동/육아 활동에서 6.9%정도, 소비활동에서 2.6% 정도로 여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인 등장인물의 활동에서 <가정>분야에서 전통적인 교과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 활동에서 여성을 대표적인 소비자로 묘사하고 있었으며 이런 현상은 중학교 <가정>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업 활동은 남성이, 소비자는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이분법적인 역할 구도의 사진 및 삽화는 과 소비하는 여성이라는 잘못된 남녀 역할 구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요구되었다. 즉 여성의 활동과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묘사의 예라고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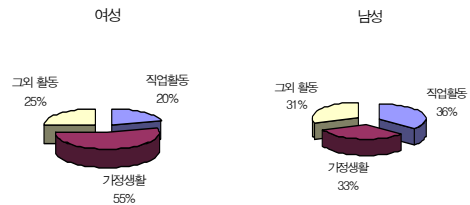
<표 IV-4> 성별에 따른 성인 등장인물의 활동

단위: %(명)

활동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기술		가정		기술		가정		기술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직업 활동	12.5 (7)	10.7 (6)	31.8 (17)	38.6 (17)	9.8 (40)	14.0 (57)	16.1 (54)	43.0 (144)	3.5 (13)	2.2 (8)	1.0 (1)	47.4 (46)
가사노동/육아	17.9 (10)	8.9 (5)	6.8 (3)	2.3 (1)	12.3 (50)	5.4 (22)	3.9 (13)	2.1 (7)	8.1 (30)	6.2 (23)	5.2 (5)	2.1 (2)
소비 활동	3.6 (2)	3.6 (2)	2.3 (1)	2.3 (1)	6.6 (27)	2.7 (11)	2.4 (8)	1.2 (4)	1.9 (7)	1.9 (7)	0	0
가족·친구/사교	19.6 (11)	17.9 (10)	2.3 (1)	2.3 (1)	11.5 (47)	10.8 (44)	2.1 (7)	2.4 (8)	28.6 (106)	25.7 (95)	0	0
운동/구경/놀이	0	0	4.5 (2)	0	2.2 (9)	2.0 (8)	1.8 (6)	1.5 (5)	1.9 (7)	0.5 (2)	0	0
일상·기타 생활	1.8 (1)	3.6 (2)	2.3 (1)	4.5 (2)	11.8 (48)	11.8 (48)	6.3 (21)	17.3 (58)	9.7 (36)	9.7 (36)	12.4 (12)	32.0 (31)
계	55.4 (31)	44.6 (25)	50.0 (24)	50.0 (22)	53.3 (217)	46.7 (190)	32.5 (109)	67.5 (226)	53.8 (199)	46.2 (171)	18.6 (18)	81.4 (79)

다. 하지만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묘사나 기술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논의를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한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정해숙 외, 1998) 다소 진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었다. <기술>분야에서는 남녀 모두 직업 활동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이 3배 정도 출현 비율이 더 높아 차이가 뚜렷하였다. 반면 가사노동/육아활동에서 여성이 2배정도 출현하는 비율이 높아 자녀 양육자로 묘사되어 전통적인 성 이미지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가정>분야에서는 가족·친구/사교 활동이 성별에 관계없이 높았으며 나머지 활동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가족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결혼과 육아와 가정생활의 실제 등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활동 내용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술>분야에서 여성은 일상·기타 생활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은 직업 활동이 가장 높았다. 특히 직업 활동에서 남성이 46명이 출현한 것에 반해 여성은 1명만 출현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렇게 여성이 남성의 비율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경향은 직업 활동의 성정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정형적 묘사가 우려 되었다. <가정>분야에서는 주부활동이, <기술>분야에서는 기술/준 전문/사무직 활동이 50.0%이상으로 매우 높아 남녀의 역할이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이는 남성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여성은 가정에서 전업 주부로서 가사/육아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이러한 예들이 남녀의 역할을 상징화할 우려가 있었다. <표 IV-4>의 결과를 통해 학교급에 상관없이 <가정>분야에서는 등장인물의 활동 양상이 직업 활동, 가사노동/육아자녀 교육, 가족친구모임/사교활동을 균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기술>분야는 활동 내용면에서는 직업 활동으로 50.0%정도 치우쳤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실과를 제외하고 남성의 출현 비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기술>분야는 직업의 세계와 진로계획, 직업윤리를 가르치는 단원이 있는 만큼 성평등적인 직업관을 습득할 우려가 높아 수정이 요구되었다. 궁극적으로 직업 활동에서 여성의 출현 비율을 높이는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타

나는 일관된 양성평등한 직업관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된 의미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제시되는 직업의 세계가 성정형적인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학습한 학생들이 모순된 가치관으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직업 활동을 보다 성 평등한 모습으로 구성할 필요가 요구되었다. 무엇보다도 학생에게 직업선택이 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와 적성, 소질에 따라야 한다는 교육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그림 IV-1]의 비교를 통해 더 명확해진다.



[그림 IV-1] 성별에 따른 성인의 활동 비교(전체)

성별에 따른 성인의 활동을 비교해 보면 여성은 가정생활이 5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업 활동이 20.0%였다. 남성은 직업 활동이 3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생활이 33.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에 맞추어 가정에서 주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인 남성은 직업 활동을 하는 가계 경제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남녀의 활동이 이분화 되고 있었다. 여기서 남성의 활동 중 가정생활이 33.0%로 표면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가족 가정생활이나 가사노동에 관련된 활동보다는 가족친구모임 등 사교 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출현 비율이 높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변화라고 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성역할 구도는 등장인물의 직종분포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표 IV-5>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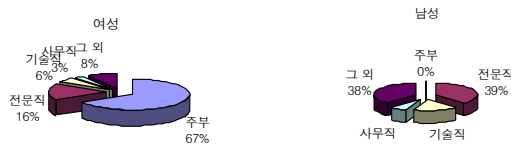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직업 직종별로 전체적인 경향이 주부 30.0%, 전문직이 24.0%로 높았다. 직종 분포에서 주부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던 전문직에서 남성 편중 현상이 매우

〈표 IV-5〉 성별에 따른 성인 등장인물의 직종 분포

단위: %(명)

활동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기술		가정		기술		가정		기술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주부	50.0 (13)	0	10.8 (4)	0	40.4 (69)	0	7.3 (16)	0	62.3 (38)	0	8.0 (4)	0
전문직	3.8 (1)	0	21.6 (8)	24.3 (9)	6.4 (11)	17.5 (30)	7.3 (16)	22.7 (50)	13.1 (8)	14.8 (9)	0	16.0 (8)
기술/준 전문/사무	3.8 (1)	3.8 (1)	5.4 (2)	5.4 (2)	5.3 (9)	5.3 (9)	5.0 (11)	10.0 (22)	0	3.3 (2)	0	50.0 (25)
서비스/판매	11.5 (3)	15.4 (4)	13.5 (5)	8.1 (3)	9.9 (17)	7.6 (13)	6.4 (14)	3.2 (7)	4.9 (3)	1.6 (1)	0	0
농/임/어업	3.8 (1)	3.8 (1)	0	5.4 (2)	0	0.6 (1)	1.4 (3)	8.6 (19)	0	0	0	0
단순노무/ 장치, 기계	3.8 (1)	0	2.7 (1)	2.7 (1)	0.6 (1)	2.9 (5)	2.7 (6)	15.0 (33)	0	0	2.0 (1)	18.0 (9)
군인	0	0	0	0	1.8 (3)	0.6 (1)	0.5 (1)	2.7 (6)	0	0	0	0
기능원 관련기능	0	0	0	0	0	1.2 (2)	0.9 (2)	6.4 (14)	0	0	0	6.0 (3)
계	76.9 (20)	23.1 (6)	54.1 (20)	45.9 (17)	64.3 (110)	35.7 (61)	31.4 (69)	68.6 (151)	80.3 (49)	19.7 (12)	10.0 (5)	90.0 (45)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급에서는 중학교에서 그 차이가 뚜렷했으며 <가정>분야보다는 <기술>분야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 IV-2]와 같이 비교해보았다.



[그림 IV-2] 성별에 따른 직업 직종 분포

[그림 IV-2]를 통해 성별에 따른 직업이 제한적으로 편중되는 전통적 직업관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성은 주로 전문직, 기술직 및 준전문가, 사무직, 단순 노무직 및 기계 조립 등 전 영역에

중사하고 있었으나 여성은 대부분이 주부¹¹⁾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그 외 전문직과 기술직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적



[그림 IV-3] 성별 직종 분리 사진 및 삽화

11) 여기서 주부를 넣은 것은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대표하는 명칭이기 때문이며 여성의 총 426명 중에서 245명이 주부로 등장하고 있어 과거지향적인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직종 분포에 하나의 내용으로 넣어 분석하였다. 주부로 상징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거나 가정에서 임신, 육아, 가사노동 등 전형적인 성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분석 대상으로 함.

측면에 내재된 질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예는 다음과 같았다.

[그림 IV-3]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서비스나 판매직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전문직의 경우에도 주로 가정 분야와 예술 분야에서 나타났으며 남성과 등장하는 경우에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문제점이며 꾸준히 정책적으로 제기된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직종 분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었다.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어머니의 모습이 전업주부의 모습만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는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을(정해숙 외, 1998)일보 전진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표 IV-5>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제6차 교육과정 보다 여성이 직업 활동에서 더 발전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직업 활동에 등장하는 성인 인물이 많지 않았던 것에 비해 <가정>분야에서 주부로 등장하는 비율이 20명 중 13명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가사 및 양육 지향적인 교과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고등학교 <기술>분야에서는 남성 45명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한 반면 여성은 5명만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4명은 주부로 묘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성 지향적인 교과이미지가 더 부각되고 있었으며 직업 활동은 남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남녀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가정>분야와 <기술>분야 사이에 상당한 시각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두 교과 집필진 사이의 시각의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으며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과(기술·가정)교과서는 양성평등한 관점의 교육내용을 다루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형평등을 이루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2) 등장인물의 성별 구성 및 관계

학교급별로 남녀 인물들이 어떤 관계로 등장하고 있는

가를 <표 IV-6>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초등학교 <가정>분야에서는 131명의 등장인물 중에서 129명이 남녀 혼성으로 등장하였으며 인물들 간의 관계는 가족 관계와 비가족관계가 비슷하였다. 하지만 <기술>분야는 남녀 혼성의 비율은 30.0%였으며 비가족관계 비율이 4배 정도 더 높아 사회생활에 대한 활동을 시사하고 있었다. 실과(기술·가정)교과는 자신의 일상생활과 가족과 더불어 집안일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실천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 내용 중 하나로 삼는다는 점(교육부, 1997)을 감안할 때 남녀 인물이 같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가정>분야에서 남녀 혼성의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비가족관계가 2배 더 높았다. 여성만으로 구성된 사진 및 삽화의 비율은 2배 정도, 남성만으로 구성된 사진 및 삽화는 10배 정도의 높

<표 IV-6> 성별에 따른 등장인물의 구성 및 관계

단위: %(명)

학교급	영역	인물 관계	가족관계	비가족관계	계
초등학교	가정	남녀 혼성	42.0(55)	49.6(65)	91.6(120)
		여 성	1.5(2)	2.3(3)	3.8(5)
		남 성	4.6(6)	0	4.6(6)
	기술	남녀 혼성	16.4(12)	65.8(48)	82.2(60)
		여 성	0	5.5(4)	5.5(4)
		남 성	0	12.3(9)	12.3(9)
중학교	가정	남녀 혼성	27.5(251)	50.4(460)	77.9(711)
		여 성	3.3(30)	7.8(71)	11.1(101)
		남 성	0.9(8)	10.2(93)	11.1(101)
	기술	남녀 혼성	7.2(30)	62.6(259)	69.8(289)
		여 성	1.0(4)	5.1(21)	6.0(25)
		남 성	1.9(8)	22.2(92)	24.2(100)
고등학교	가정	남녀 혼성	52.8(293)	30.3(42)	83.1(461)
		여 성	2.3(13)	7.6(42)	9.9(55)
		남 성	0.7(4)	6.3(35)	7.0(39)
	기술	남녀 혼성	3.7(3)	43.2(35)	46.9(38)
		여 성	0	0	0
		남 성	2.5(2)	50.6(41)	53.1(43)

은 비율로 비가족관계로 나타났다. <기술>분야에서는 남성만 출현하는 비율이 여성만 출현하는 비율보다 4배 높아 여성 소외가 가시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등장인물의 구성관계는 모두 비가족관계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가정>분야에서는 남녀 혼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관계로 주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그 외 한쪽 성만으로 구성된 사진 및 삽화는 비가족관계로 묘사되었다. <기술>분야에서는 남녀 혼성의 비율보다는 남성만으로 구성된 사진 및 삽화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그 구성관계도 비가족관계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만으로 구성된 사진 및 삽화의 비율이 0%로 나타나 남성적 성향의 교과 특성을 더욱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실과(기술·가정)교과서는 두 교과가 병합되어 각 단원별로 성별에 따른 출현하는 빈도에 따라 성 편향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¹²⁾ 감안한다면 <기술>분야의 사진 및 삽화들이 시사하는 남녀 역할에 대한 이미지들은 교수 학습 자료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중학교로 갈수록 비가족관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중학교의 「산업과 진로」 등과 같은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활동을 사회생활속에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그리고 학교급에 상관없이 <가정>분야에서 가족관계보다는 비가족관계의 비율이 높아진 것과 여성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비가족관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활동의 범위가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가정>분야에서 가족관계 비율이 남녀 혼성으로 등장하는 사진 및 삽화에 높은 이유는 가족·가정생활을 다루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관계를 통해 가족생활의 중요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성격을 살려 전 학년에 걸쳐 「가족

과 가정생활」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가정 내의 가족생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줄 뿐 아니라 양성평등사회에서 남녀가 공존해 가는 모습을 표현하거나 실천력을 기르는 학습을 위해 가족생활을 다루는 <가정>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기술>분야에서도 가족의 모습을 사진과 삽화로 등장시킨다면 양성평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과(기술·가정)교과서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사진 및 삽화¹³⁾를 점진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3) 양성평등관련 내용에 대한 묘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성격의 남녀 인물을 통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를 단원을 중심으로 명시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과 같았다.

<표 IV-7> 양성평등 관련 내용에 대한 묘사

단위: 개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기술	가정	기술	가정	기술
여성의 지위와 역할	1	0	2	0	1	0
양성평등 소재(문제)	3	3	6	2	2	0
계	4	3	8	2	3	0

분석결과를 보면 실과(기술·가정)교과서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사실상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다. 양성평등 관련 내용도 16개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가정>분

12) 학생의 성에 따라 별도의 교과목을 배우는 고등학교의 경우(제 6차 교육과정의 가정, 가사, 기술, 진로직업)과목에 따라 성별 등장인물의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났으며 기술교과는 본문이 아닌 교과서 표지등과 본문의 일반적 기술에서의 성별 등장인물 분포 사이에 차이가 컸다. 이는 교과서 집필 및 제작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시적 효과가 높은 교과서의 걸, 속표지 등에서는 등장인물 출현의 성별 형평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한 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에서는 등장인물도 그 성에 치우쳐 등장하며 이러한 경향이 기술교과의 경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제 6차 고등학교 기술: 여성 15.2%, 남성 84.8%-(정해숙, 1998)

13) 삽화를 교과서에 표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삽화의 성격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삽화는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과 내용과 일치하며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교과내용에 부적절한 삽화를 제시하면, 오히려 학습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학습자를 산만하게 만들어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채기범, 2004)라는 선행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실과(기술·가정)교과서에 나타나는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등장인물의 구성과 인물들 간의 관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 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가족과 가정생활, 의·식·주생활을 주로 다루고 있는 <가정>분야에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야에서 찾아볼 수 있어 <기술>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내용의 삽입이 요구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가정>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한 교육내용은 「생활환경 정돈하기」 단원에서 주부의 활동으로 1개였으며 양성평등 관련 소재(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내용은 「나와 가정생활」과 「용돈 관리하기」 단원으로 가사노동활동에서 2개, 「재봉틀 다루기」에서 남자를 등장시켜 기존의 여성 영역으로 인식되어오던 <가정>분야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1개를 다루고 있었다. <기술>분야의 양성평등 관련 소재(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내용은 「컴퓨터 다루기」에서 성 편향적인 직업관에 입각한 삽화를 통해 생각해 보게 하였으며 「전기 기구 다루기와 전자 키트 만들기」에서는 여아를 등장시켜 남성적 영역으로 인식하기 쉬운 <기술>분야에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일과 직업의 세계」에서 다양한 직업에서 남녀를 고루 등장시켜 3개정도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여성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교육내용은 없었다.

중학교 <가정>분야에서 양성평등 관련 소재(문제)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가족 내 역할, 권한, 관계에 대한 활동,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와 「가족의 식사관리」 단원에서는 가사노동 활동, 「의복 마련과 관리」에서 노동·경제 활동으로 모두 6개였다. 여성의 지위와 활동에 관련된 교육내용은 「자원의 관리와 환경」과 「가족생활과 주거」 단원에서 주부의 가사노동 활동으로 2개로 나타났다. <기술>분야에서는 양성평등 관련소재(문제)와 관련된 교육내용으로 「산업과 진로」 단원에서 직업 활동, 「전기 전자 기술」에서 남녀의 역할에서 2개를 찾아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는 <가정>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 교육내용은 「가정생활의 설계」에서 결혼과 육아활동에서 1개가 나타났으며 양성평등 관련 소재(문제)와 관련된 교육내용도 가족 내 역할, 관계 활동에서 1개를 찾아볼 수 있었다. 「가정생활의 실제」에서도 가족의 내 권력, 역할과 관계에서 1개가 나타났다. <기술>분야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워 양성 평등적 관점으로 내용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성편향적인 교과로 간주된 가정과 기술 교과와 양성평등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유용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내용을 실과(기술·가정)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의 양성평등성과 성별에 따른 남녀 역할을 비교하기 위해 크게 등장인물의 특성(성별분포, 출현장소, 활동 및 직업), 등장인물의 성별 구성 및 관계, 양성평등관련 내용 묘사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양성평등적 유용성을 점검하기 위해 교과 내용을 <가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한 후 계량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장인물의 특성에서 성별 분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양적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의 실과가 중등학교의 기술·가정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가정>분야가 <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성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등장인물의 활동이 역할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출현 장소에서는 학교급별에 상관없이 모두 <가정>분야는 가정(장소)을 배경으로, <기술>분야는 공공·일반시설, 야외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교과이미지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중등학교에서는 각 분야별로 이분법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고의 틀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셋째, 등장인물의 활동 및 직업의 분석 결과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별분리현상과 고정형적인 묘사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뚜렷하였으며 <기술>분야에서 고정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넷째, 등장인물의 성별 구성과 관계에 대한 결과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두 남녀 혼성으로 등장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비가족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남성의

생활은 비가족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생활로 설정했던 문제점이 다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분야에서는 남성만으로 구성된 사진 및 삽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한쪽 성의 소외가 가시화되고 있었다.

다섯째, 양성평등 관련 내용 묘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지위나 역할 혹은 양성평등 관련 소재(문제)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가정>분야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으며 하나의 교과서로 병합된 현행 기술·가정 교과서의 <기술>분야에서도 <가정>분야와 상호 모순되지 않는 일관된 관점에서의 진술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는 양성의 경험과 흥미를 고루 반영한 교육내용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로 기술·가정 교과서는 남녀 모두 이수하는 교과이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정>분야는 양적분석에서는 <기술>분야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성 편향적인 교육내용이 지적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술>분야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양성 모두가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요구되었다.

둘째, 실과(기술·가정)교과서에 잠재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수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이 요구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되는 가정생활, 직업생활, 경제생활 등에서 여성적 혹은 남성적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유도하는 사진 및 삽화 등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 관점에서 요구되었다. 남녀 학생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분야에서는 남학생 입장에서, <기술>분야에서는 여학생 입장에서의 배려와 환경 조성이 요구되었다.

셋째, <가정>과 <기술>분야에 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 혹은 양성평등 관련 소재(문제)와 관련된 교육내용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가정>분야는 가족과 가정생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기술>분야는 간접적인 주제와 소재로 다루고 있는 정도이며 다루는 비중도 아주 적어 다양하고 실제적인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

하는 교육내용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양성평등관점에서의 교과서 점검은 양적 분석 뿐만 아니라 심층 분석에 따른 후속 연구도 요구되었다.

참고문헌

강선미(2004). **7차 가정교과에서의 양성평등 교육내용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1997).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해설**.

_____(1997).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을 만듭니다**.

김미정(2004).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 교과서 삽화 및 사진 내용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선경(2002). **제 6, 7차 실과, 가정, 기술, 기술·가정 교과서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재인·정해숙·양애경(199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춘·왕석순(1999).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자·임선희·이영세·강선혜(1985a).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자·임선희·이영세·강선혜(1985b).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민자(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학회연구회, 사회문화연구소.

박수림(2000).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배은주(2005). 가정과에 적용한 양성평등 수업이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1), 1-13.

사미숙(2003). **가정과 교육과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재림·정해숙(2002). **양성평등관점에 기초한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심의 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왕석순(2000). **고등학교 가정과 (가족)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수업지도안 개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윤근섭(1997). **여성과 사회**. 문음사.

이호숙(2003). **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 인식 실태 분석-부천시 일반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은주·이성숙,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실과 교수·학습이 성역 할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7(4), 61-74.

임정빈(1997). **성역학과 여성**. 학지사.

정해숙·정경아(1998).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

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김연(2002).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 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2003). 중등 가정과 교육의 성격에 관한 성인지적 접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55-66.

정혜윤(2001).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양성평등 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천 차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교육 실현방안 탐색 세미나 자료집**.

<국문요약>

본 연구는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요구에 따른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실과(기술·가정)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 목적은 실과(기술·가정)교과서에 제시된 사진 및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성과 남녀역할을 분석해봄으로써 남녀공통이수 교과로서 그 유용성을 점검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과서 집필시 혹은 검정 작업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교과서로 병합되어 있는 실과(기술·가정)교과서를 <기술>분야와 <가정>분야로 나누어 계량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는 자료가 방대하였으며 양성평등 요소도 많지만, 성차별적인 요소도 많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진 및 삽화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대체적으로 균형 있는 출현 빈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아직도 성 차별적인 요소와 교육내용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가 양성평등성을 지향하는 정도가 가장 높아 성차별적인 요소가 적은 반면 중등학교 기술·가정에서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아 개선이 요구되었다. <기술>과 <가정>분야를 비교해 보면 각 분야 모두 전통적인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술>분야에서 그 성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언하면 중등학교의 기술·가정은 양성의 흥미를 모두 고려한 교육내용으로 개선이 요구되었고 <가정>분야보다는 <기술>분야가 사진 및 삽화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인지가 낮아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보완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실과(기술·가정)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에 내재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정>분야와 <기술>분야 모두 적극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요구되었다. 또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점검하는 작업은 표면적인 양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질적 측면에서의 후속연구가 요구되었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1월 21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1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3월 28일